

지역 소식통

고창군 '노인의 날' 성료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읍면 분회장, 유공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매년 대규모로 열렸던 노인의 날 행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올해는 참석인원을 축소해 열렸다. 기념식에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14명과 노인복지자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일선 노인복지기관에서 애쓰는 종사자 등 총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정기수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들 때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노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노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주시는 어르신들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복지제도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도로교통량 조사

부안군은 지방도와 군도를 대상으로 15일 오전 7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통량 조사는 도로법 제 87조 규정에 따라 관내 지방도 11개 지점, 군도 11개 지점 총 22개 지점에 연인원 88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12개 차종으로 분류하고, 주행 방향별·시간대별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교통량 조사는 총괄반과 지역별 2개반을 편성해 도로교통량 조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사지점 관측소별로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사된 자료의 결과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의 계획,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교통량의 증감에 따른 도로정비 수요계획과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노후 산단 리모델링

제3산단 경쟁력 강화·복합문화센터 공모 선정 지역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거점 탈바꿈 기대

정읍시가 제3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 거점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3 일반산업단지의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노상주차장 설치와 인도 정비, 친환경 녹색공원 정비, 노후 공업용수 시설 정비 등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시는 순차적으로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3 일반산업단지에 국비 28억원과 도비 3억6,000만 원 등을 지원받아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와 편의시설이 집적화된 공공시설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착공해 2022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시가 제3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들어간다.

표로 하고 있다.

시는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와 복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층 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기술인력의 유입 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 5명 선정

문화체육장 김옥진·공익장 이강수·산업근로장 오금열 등

고창군이 지난 14일 남다른 애항심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군민을 발굴하여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제 36회 고창 군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확정했으며, 문화체육장에 김옥진(67, 여), 공익장에 이강수(70, 남), 산업근로장에 오금열(66, 남), 애항장에 정관훈(73, 남), 효행장에 이훈애(71, 여)님이 각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1985년에 처음 제정된 군민의 장 수상자는 지난해까지 총 35회에 걸쳐 152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김옥진씨는 현재 사(사)예술총연합회 이사과 고창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다. 남다른 열정과 애항심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 수많은 공연으로 관소리의 고장 고창의 위상을 높였다. 소외계층과 후학 양성을 위한 공연의 대부분을 재능기부로 헌신하여 참예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익장에 선정된 이강수씨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고창군수로 재직했다. 재직기간 중 고창군이 국내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고, 흥덕산업단지 분장을 완료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산업근로장의 오금열씨는 1985년 송아지 5마리로 축산업에 첫발을 내딛고, 고창군 낙농회장, 현재는 고창형정 유기농조합법인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사회에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우유의 생산으로 고창군이 친환경 유기농 우수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했다.

애항장에 선정된 정관훈씨는 대산면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청장년시절을 보내면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등을 지내면서 고창수박의 명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출향 후에도 재계 대산면민회장으로 불우이웃 돕기 고창수박 구매운동, 경로당 시설물 현대화 지원 등 애항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행장에 선정된 이훈애씨는 시조부 모와 시부모 2대를 모시며 극진한 효행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2녀의 자녀를 키우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효행으로 시어머님을 현재 100세가 넘도록 정중하고 계시고 생업을 합에도 소홀하지 않고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지역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고창군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 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홍보대사 진시몬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 메세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공무원에 고마움 전해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진시몬 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영상에서 가수 진시몬 씨는 일상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 지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

해 고군분투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보건소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의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시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지막도 불렀다.

코로나19 응원 영상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 se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진시몬 씨는 지난달 17일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역의 풍성한 역사와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트로트 열풍에 맞춰 각종 지역 행사와 방송 등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격포항 매운탕'·'김현균 율리이장' 착한가게·가정 동참

부안군 부안읍은 지난 14일 착한가게와 착한가정에 가입한 격포항 매운탕(대표 김정운)과 김현균 율리이장에게 착한가게 현판과 착한가정 액자를 전달했다.

이들 가게와 가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가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한가게·가정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방법의 일환으로 개인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착한가게·가정 가입 문의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기부금품은 현물지

원, 생활자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 본격

학교 주변 통학로 등 16개 구간

정읍시는 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그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배전선로 등을 지중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와 보행 불편 지역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구간은 동초등학교와 정읍여중 등 학교 주변 통학로 16개 구간(L=7.22KM)이다.

국비와 한전 등의 지원을 받아 총예산 288억원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한전과 공사 통신, KT 전선·케이블 선 등을 매설하고 기존선로와 지장전주를 철거한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우암로(동초등학교 ~ 새암로)와 초산로(정읍여중



~ 정주교)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통해 구도심인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전선로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통학생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 미관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